

전(傳) 다치바나 부인 염지불과 감실(하쿠호 시대 국보)

다치바나노 미치요(다치바나 부인, 생년 미상~733년)는 제 45대 천황 쇼무 천황(701~756년)의 비인 고묘 황후(701~760년)의 모친으로, 이 목제 감실에 절하던 이가 다치바나노 미치요라 여겨집니다. 감실 안에는 아미타여래와 2구의 보살로 이루어진 아미타삼존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. 매우 정밀한 이 청동제 상에서는 당나라 초기의 영향이 엿보여 7세기 후반의 작품으로 추정됩니다.

3구의 상은 각각 연꽃을 본뜬 대좌 위에 앉은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데, 이 연꽃은 불교 도상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. 연은 연못 바닥의 진흙 속에서 자라남에도 불구하고 길게 뻗은 줄기 위에 피어난 그 꽃은 마치 탁한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현세에 대한 집착과 욕망과의 갈등을 상징합니다. 세상이 이러한 욕망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.

감실에는 여러 보살과 ‘금강역사’라고 불리는 불교의 수호신이 그려져 있으며 뒷면에도 아미타여래가 있는 극락정토에 갓 왕성한 보살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. 그려진 모습에 다른 문화의 영향도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 감실은 극동 미술 발전의 정점에 있는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